



오인회 소식

2018년 5월 (제80호)

권두언 (卷頭言)

걱정말고 걸어라

걱정말고 걸어라
어떻게든 될것이다
하지만 생각처럼되진 않는다

생각처럼 안된다고 좋을지 나쁠지는 모른다

또 생각처럼 된다고해도 그대는 지루해서
새로운것을 찾을것이다

- 超顯 -

*** 홀로스 공동체 후원 현황 ***

홀로스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홀로스 운영 후원 내역

○ 일반후원

4월 9일 류창형 3만원/ 4월10일 권오인 20만원 / 4월 10일 선호 1만원 / 4월 20일 여행 1만원/
4월 27일 장경옥 10만원

● 공동체학교 후원 내역

○ 일반후원 (기보 100만원/ 연주 60만원, 바람 300만원, 지원 100만원, 자명 160만원)

○ 월정기후원 (매월 20만원 2년간/ 별칭 뒤에 숫자는 월 후원 횟수 입니다)

- 일반 (익명1/24, 익명2/24, 능주18, 솔내음15, 무유16, 고을16, 서원15, 여몽16, 원님16,
기보16, 썬이13, 허유14, 거위14)
- 기타 (가온17, 구당16, 자현16)

<공동체학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 안내

번뇌즉보리 총서 2권이 준비 중입니다. (대승기신론上 출판 완료, 中 출판비 : 450만원/ 현재 후원
액 3,669,951원 (上출판 이월금 215,451원, 능주40만원, 우현 254,500원, 기보 100만원, 금산스
님 50만원, 나무 30만원, 고을 100만원)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개인을 위하는 것이 곧 전체를 위하는 것이 되도록...

솔내음 인터뷰 2

솔내음님은 20대부터 자신의 강도높은 '분노'에 대한 궁금증으로 마음공부자리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명상/참선/위빠사나/아빠타코스/에니어그램/꿈분석/간화선/인도 마두반에 있는 영성대학교, 브라마쿠마리스 라자요가 기초·중급과정 명상/깨어있기/통찰력게임...등등. 그리고 화요오인회와 수요일오인회에 참석하면서 한 주간의 주제를 품기에서 점점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실시간 마음작용을 볼 수 있고 크게 걸림없는 일상, 감사가 많아졌습니다. 토종씨앗(농업)/천연발효의 세계(음식)/교육을 나란한 자리, 세 축을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지금은 충북 단양군 도담삼봉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당장 이 세상 소풍길 마치더라도 큰 아쉬움이 없기를...' 내가 품고 사는 기도다.♡

허: 예전에는 일상생활에서 화를 불같이 많이 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0이 최대치라면, 제가 한번 화를 내면 거의 8~9, 9.5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허: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솔: 확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거 왜?' '뭐가 기준이야?' '어째서 된 거야?' 하고 잠깐 멈춰보면 그렇게 화낼 게 없을 만큼 답이 찾아져요.

허: 어떻게 찾는지요?

솔: 예를 들어 남편이 2001년에 천안으로 이사가면서 담배를 끊었는데, 2017년 지난 겨울부터 거의 18년 만에 담배를 다시 피웁니다. 그 이유가 지금 굉장한 격변기이고 이런 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피운다고 해요. 참 싫은데, 저거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문제로 가만히 생각했어요. 화를 내고, 왜 피우냐고 대립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깐, '피우든 안 피우든 본인의 선택이다,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하고, 경기를 일으켜봤자, 직접 풀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싸워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내적으로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나니까 걸으로는 그냥 부드럽게 나와요. "난 안 피우면 좋겠어요. 언제 그만 하려고 해요? 냄새가 좀 독하거든요?"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담배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허: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진 이유가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셔서 그런 건가요?

솔: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 싫어하지? 이게 왜 싫지?'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요. 물으면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건강 등등.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맡기자. 그리고 기도하자. 부드럽게 저 분이 진짜 빨리 그만두도록 마음만 쓰자. 이렇게 가는 거죠.

허: 남편한테 왜 담배를 피게 되는지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진 않으셨어요?

솔: 물어보면 이야기해요.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고 금전적으로 터무니없는데 진행해야했고 굉장히 똥가 많이 짓눌리는 상황이에요. 조바심도 많고, 털어버리고자 하는 욕구, 핑계, 그 가운데 있었던 거라고 해요.

허: 남편분이 하는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심신이 눌린 상황이셨나봐요. 평소에 부부 사이에 대

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솔: 많이 하죠. 요즘은 덜 하는 편이지만, 산책하는 동안 두 세시간씩, 내외지간에도 일주일에 한 번내지 두 번, 두세 시간 충분히 이야기하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다. 다 해결된다고 봐요.

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솔: 지금은 그렇게 길게는 못하고, 한참 사업 열심히 할 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녁마다 월 2회 두 시간 안팎 산책하는 시간에, 회사든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엉뚱하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게 얽혀가지고 막 잘못되는 상황이 다 파악되더라고요.

둘이 같이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같이, 회사일도 같이 하는데 소통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야기만 하면 다 되는데, 어쩌다 또 시간을 놓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일로도 문제가 생기고, 집에서 불화가 생기고.

허: 일을 같이 하시니까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었다는 거네요.

솔: 오해라기보다 소통을 했죠. 실시간 소통을 했죠. 업무소통이든 집안일 소통이든. 공유가 되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허: 그런데 요즘에는 남편분 혼자 일을 하시는군요.

솔: 아니요. 아들 하는 일에 아버지가 지원을 하고, 저는 살림집을 옮겨와서 1층이 사업장, 2층이 살림집. 그래서 시간을 엄청 쪼개서 쓰는데 저는 아들 사업장에서는 일 안하겠다고 선언했고, 남편은 아들하고 파트너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허: 어떤 일을 하시나요?

솔: 두부전문점. 두부를 직접 만들고, 그 만든 두부로 조리해서 식사 메뉴를 내는 식당이에요.

허: 그런데 남편분은 어떤 게 힘든 건가요?

솔: 사업장을 옮겼거든요. 조그마한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 그래서 환경조성, 금전적인 투입, 해결,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다보니 굉장히 골머리를 썼죠. 한 몇 개월.

허: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인가요?

솔: 진행 중이에요. 옮겨온 지 두달 반 넘었고요. 시설도 확장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 중인 거죠. 마무리를 해야 하고 매듭을 지어야 하고, 그러려면 사업장이 활발해야 하고, 아들은 서른이니까 총괄적인 것은 아버지가 진행한다고 봐야죠.

허: 그러면 지금 솔내음 님이 화라든지 일상에서 느끼는 짓눌리는 감정이라든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편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편분이 일시적으로 사업문제 때문에 신경쓸 게 많아서 담배를 다시 피고 계시면 남편분에게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번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는 안하시나요? 어떠세요?

솔: 그렇게 제안은 안 해도 음식이나 내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부드럽고 순하게, 때를 봐서 슬쩍슬쩍 이야기하죠. 그럼 아세요. 맡겨두라고. 시간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끊겠다고.

허: 그러면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군요.

솔: 네, 그것도 그냥 편안해요.

허: 남편분은 마음을 살피는 공부에는 크게 관심 없으신가요?

솔: 관심 없으세요. 옛날에 제가 등록비내고 다니면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돈을 내고 그런 걸 하러다녀. 그냥 되는 거지, 그게 왜 배워서 돼?” 이렇게 놀려요.

남편은 머리형이라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저는 가슴형이라 감정적으로 늘 휘둘린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 제 느낌은, 그래도 그 동안 나를 집중했던 결과치와, 남편이 배움을 백안시 하고 '그걸 왜 해, 그냥 되는 거지' 하고 놀렸던 것이, 내공이라고 할까, 속심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느껴요.

허: 어떤 점에서 그런 차이를 느끼세요?

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편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에 대한 셈, 계산이 잦대가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적응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원활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무디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직관으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제가 더 빠르거나 정확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이 인정을 하죠.

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해보자면..

솔: 예를 들면 지금 사업장을 옮겨와서 이래저래 진행되고 있는데, 남편은 사업적 마인드가 강하니까 매사를 펼치고 확장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기에 거의 집중해요. 시설부터 메뉴개발 등등. 공학도라서 음식은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펼칠 때 저는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음식 관점에서 또는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파는 사람이지만, 먹는 사람과 파는 사람, 양쪽 다를 위해서 이걸 맞고 이걸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면,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걸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제안해서 그네들의 계획을 제가 접게 하죠.

허: 이야기하시는 게 반영되나 보죠?

솔: 그렇죠. 메뉴를 정할 때도 이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대면, 처음엔 답답해하다가 이제는 반영해요. 순기능이 있어요. 상호간에.

허: 서로의 역할이 보완적으로 된다는 거군요. 남편분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올려서 이윤을 낼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솔내음 님은 식당이라는 게 손님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음식도 맛있어야 한다는 관점이고요.

솔: 함께. 우리도 좋고, 오는 사람들도 좋은 음식 먹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허: 그게 사실은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걸 남편분이나 아드님도 이제 이해하신다는 거죠?

솔: 서른이 된 아들이 엄마를 답답하다고, 외골수라고, 엄마처럼 하면 세상에 먹을 것 없다고 덤뻐버렸거든요. 처음에는 과심하다고 이렇게 반응하다가 이제 한 템포 늦춰요. 말로 안하고 가족 단체 카톡방에다가 간결하게 글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먹히더라고요.

허: 어떤 식으로 정리하세요?

솔: 예를 들면 지금 사업장에 큰 간판으로, 음식이 만들어진 이력이나 식재료 등을 살핀다는 뜻에서 '음식시민'이라고 해놨어요. 간판에다가 젊은 주인장 얼굴을 크게 찍어서 음식시민을 강조해서 올린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음식도 음식시민의 개념과 걸맞아야 한다, 그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글로 풀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예민할 때는 입을 다물고 글로 가요.

참고로 '음식시민'은 슬로우푸드협회의 김종득 회장이 쓰는 용어인데, 시민은 문맹자가 아니라 음식의 식재료 이력, 만드는 과정, 생산유통 등을 다 살펴서 볼 줄 아는 사람을 말해요. 반대로 싸고 맛있고 빠르고 쉽고 이런 것만 즐겨찾는 분들은 음식문맹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사실 대부분이 음식 문맹이죠. 우리식당 같으면 산분해간장 대신에 진짜 발효 집간장을 쓰고, GMO콩 말고 지역콩을 쓴다, 이렇게 짚어서 말하는 거죠 실제로.

허: 그걸 식당 안에 잘 보이는 데에 설명해놓으셨다는 건가요?

솔: 설명은 안 해놓고, 앞에 간판에 걸어놨고, 우리 서른살 청년한테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

쥬. 네가 가야 할 방향과 철학을 깨면 안 돼. 이런 쪽으로.

허 : 아드님이 이해하시는 편인가요?

솔 : 엄마를 거의 문화재취급해요. 되게 별난 엄마. 엄마처럼 하면 이 세상에 먹을 것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조미료를 쓰지 않고, 자연육수를 내서 쓰고, 직접 항아리에서 담은 집간장을 쓰죠. 식당에서 이것만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해요, 우리집에서는. 우리 아들이. 그것만 해도 고맙죠.

허 : 주로 상대하는 분들이 가족분들과 손님분들인가요?

솔 : 저는 식구들과는 잠잘 시간 만나고, 그 외에는 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천연 발효의 세계’라고 해서 설탕을 쓰지 않고 유기농 곡물로 음료, 술, 식초, 장아찌, 장, 그리고 차, 찌고 말리고 말리는 숙차, 발효라고 이름지어진 모든 갈래는 제가 안내, 자문을 하죠.

허 : 평소에 그쪽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하셨나요?

솔 : 전공은 아니고요. 그 계기가 미내사예요. 제가 사업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플 때, 미내사 북카페에서 ‘평화가 깃든 밥상’ 요리 공부를 하면서 그때 발효를 알게 되어서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따로 3년간 사사받았어요. 항아리에서 미생물이 끓는 소리에 끌려서 따로 지리산자락에 계시는 한 선생님한테 5월 한 달씩 3년간 산에 가서 산야초 익히고 채취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시작됐죠. 그래서 미내사가 각별해요.

허 : 그걸 발전시켜서 사업적으로 접목하셨군요.

솔 : 좋아하니까 길이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평생교육사 2급을 땀어요. 강의하기 위해서요. 강의를 하는 데가 평생학습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주류예요. 강의를 의뢰할 때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강의이력도 있지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땀 것도 도움이 됐죠.

허 : 강의하시거나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예전의 감정적인 문제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솔 : 20대에 교사를 했고, 고등학교 교사로 10년 있었어요. 제가 초등6년, 중고 6년 동안 장래희망이 한번도 변하지 않고 교사였어요. 되짚어보니까 제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10년 고등학교 교사를 했고 40대 10년은 어린이도서연구회 강사를 했고, 그리고 남편의 회사일을 9년 하고, 지금도 강사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일은 신바람 나는 일이고 재미있는데, 큰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욕심을 내서 뭘 많이 가르쳐주고 시간을 들여서 많이 주고 싶어 했다면, 지금은 수강생들을 살펴봐요. 저 친구들이 다 감당을 하고 있는지, 해결이 되었는지, 또는 버거워가지고 해매고 있는지, 이걸 살펴본다는 게 지금은 달라진 점이죠.

허 : 왜 그렇게 달라지신 것 같나요?

솔 : 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다면, 지금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유익한지를 보고, 아무리 많이 줘도 저쪽이 감당을 못하면 선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늦추더라도, 욕심을 줄이더라도 상대도 같이 좋고 감당되는지까지 살펴보게 된 거죠.

허 : 그러면 지금은 가정생활이나 외부 강의,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솔 : 아주 지극히 감사해요. 요즘은 정말 많은 감사가 일고, 농담처럼 말해요. 나는 지금 이 세상 끝내도 크게 여한이 없는 순간을 살았으면 좋겠다. 늘 노래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요. ‘지금 눈 감아도 괜찮아? 응, 괜찮아.’ 이렇게 답이 그냥 나와요.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대승기신론(63) - 2013년 7월 16일 강의

월인 (越因)

지난시간에 이어 오늘은 용熏습(用熏習)을 강의하겠습니다.

진여가 물든 마음을 맑게 하는 과정인 진여熏습(眞如熏習)에는 자체상熏습(自體相熏習)과 용熏습(用熏習)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체상熏습(自體相熏習)은 우리 자체가 진여, 즉 진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밝히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내적인 인(因)이 됩니다. 반면에 용熏습(用熏習)은 외부적인 만남을 통한 깨우쳐짐을 뜻하는 것으로 외적인 연(緣)이 됩니다.

나무 스스로 불에 타는 소인과 나무에 불이 붙게 할 수 있는 성냥이나 불씨 같은 외부의 요인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내적인 인(因)과 외적인 연(緣)이 만나서 인연(因緣)을 이루어 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마음이 맑아지는 깨우침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본성은 언제나 진리 그 자체여서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측면인 내적인 인(因)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깨우치려고 애써 노력하는 특성의 측면이 더 부각됐었죠. 그런 게 있어야만 더 빠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런 내적인 인(因)이 있다 해도 외부의 연(緣), 즉 내면의 진리를 일깨우는 불쏘시개가 되어줄 외부의 스승이나 책 등의 연(緣)을 만나지 못하면 깨어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외부의 도움에 해당되는 용熏습(用熏習), 즉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用熏習者。則是衆生外緣之力。如是外緣有無量義。略說二種。

용熏습자, 즉시중생외연지력. 여시외연유무량의, 약설이중.

용熏습(用熏習)이란 곧 중생의 외연(外緣)의 힘이니, 이 외연에 무량한 뜻이 있으나 대략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다.

云何爲二.

운하위이.

무엇이 둘인가?

용熏습(用熏習)이란 중생의 외적인 원인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인(因)은 물든 마음을 본질의 투명함으로 바꾸려는 내적인 열망이라고 할 수 있고, 연(緣)은 스승이나 책,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一者差別緣。二者平等緣。

일자차별연. 이자평등연.

첫째는 차별연(差別緣)이요, 둘째는 평등연(平等緣)이다.

차별연(差別緣)이란 범부와 이승(二乘/연각승과 성문승)이 분별사식熏습(分別事識熏習)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생사와 열반이 다르다는 분별을 통해서 간다는 말이죠. 희노애락(喜怒哀樂)에 시달리고 두려움과 슬픔 등의 괴로움을 많이 겪는 사람은 생사(生死)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열반의 세계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생사의 고통과 열반,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범부와 이승인의 분별사식(分別事識)을 통한 길입니다. 생사와 열반을 나누는 차별이 하나의 인연이 되어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 차별을 통해서 열반을 향해 애써 노력하고 수행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사와 열반이 따로 없음을 알아채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내 마음이 만든 분별에 의해서 나타났을 뿐, 실제로는 지금 내가 느끼는 분별된 현실은 없다는 것을 알아채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의 도움을 받아 형성된 마음의 세계가 그려낸 분별된 그림이지, 실제 저 밖의 세상은 그 어떤 분별도 없는 세상입니다.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일곱 색깔 무지개의 색깔을 띤 사물들이 분별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적외선과 자외선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더라면 더 많은 색깔로 분별된 세계를 경험하겠죠. 물론 그런 감각기관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남은 그 감각기관의 흔적들을 교묘하고 엄밀하게 결합하고 재조정하여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장이라는 게 없다면 세밀하게 분별해서 보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후각을 가졌고, 귀도 아주 예민하지만 우리만큼 세계를 다채롭게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개의 눈은 흑백만 구별하고, 미각도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와 코의 민감도는 사람보다 낫지만, 그 감각을 마음의 장에서 조합하는 능력은 사람보다 정교하거나 엄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즉물적으로 반응하고 마는 겁니다. 마음 또는 의식이라는 또 다른 민감한 감각 기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개들은 우리보다 둔하게 분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분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라는 것은, 경험자와 경험되는 대상 사이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느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죽어도 이 세계는 변함없을 거야.’ 이렇게 믿죠. 내가 죽으면 내 세계는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그들의 세계가 있을 뿐이죠. 또한,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감각기관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일체의 분별은 우리 마음속의 분별이라는 점과 마찬가지로, 원래 차별이라는 게 없는데 중생의 마음은 생사의 고통과 열반의 즐거움을 나누고서 생사를 버리고 열반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훈습의 차별연(差別緣)을 통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별없는 지혜를 통해 궁극에 도달하게 됩니다.

연(緣)은 깨우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도움입니다. 그 중에 분별함으로써 도움을 얻는 것이 차별연이라면, 언뜻 보게 된 분별없음을 통해서 가는 게 평등연(平等緣)입니다. 보살의 업식熏습(業識熏習)을 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며 마음의 작용을 언뜻 본 보살들은, 미세한 느낌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봄으로써 그것의 비존재성을 파악하고, 결국 모든 분별은 마음의 미세한 느낌들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평등연을 걷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경계가 나타나는 것이지, 고정되고 분별된 경계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마음의 분별을 사물이 가지는 고유한 분별인양 여기는 마음이 고정된 경계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차별을 일단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차별연이라면, 평등연은 분별이 마음의 문제임을 즉각 직지인심(直指人心)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탁자와 컵을 보세요. 우리는 외부 대상이 이렇게 분별된다고 여깁니다. 탁자와 컵이 다르다고 분별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것은 공간이요. 두 개의 사물이 공간 없이 딱 붙어있으면 어떻게요? 둘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의식적인 분별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란 것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지 연습을 처음 할 때 사물의 경계를 그렸었죠. 지금 앞에 있는 탁자와 탁자 아닌 것 사이의 경계를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탁자의 외부 테두리인 경계선에 눈의 초점을 맞추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경계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어떻습니까? 맨 처음 본 그대로 경계선이 유지되나요?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거나 희미해지거나 흐려지죠? 맨 처음 보았던 경계선의 느낌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경계선은 변하는데, 우리는 ‘저건 탁자지. 그리고 탁자는 탁자 아닌 것과는 완전히 달라.’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고정시켜버립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는 느낌은 고정돼 있지 않고 달라지는데, ‘탁자’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면 그때부터 그 경계선이 변함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자신의 어깨를 느껴 보세요. 그 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내 어깨가 아니라는 몸의 경계선을 정확히 느껴 보세요. 자신의 몸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느낌이 있기 때문인데, 몸의 경계선의 느낌도 잘 느껴보면 아까 탁자의 경계선처럼 희미해질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각이 없고 촉각만 있다면 내 몸은 불분명할 거예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느 부위에 주의를 주고 있으면 다른 곳은 잊혀지고, 또 주의를 계속 주면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해지죠. 자신의 몸 전체를 잘 느껴 보세요. 내 몸이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그 몸으로 느껴지고 있는지. 부위는 느껴

지지만 경계는 뚜렷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압력의 차이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대상을 주어야만 유지되는 거지, 그냥 경계선 자체를 들여다 볼 때는 희미해지고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은 여기서 여기까지야.’라고 여기며 산다는 거죠.

지금 느껴본 것처럼 물리적인 경계나 감각적인 경계선이 이처럼 희미한데, 마음의 경계는 어떻게 습니까? 더 희미합니다. 경계와 분별을 기반으로 우리의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경계와 분별 자체의 느낌이 희미하다는 걸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의식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기반은 느낌입니다. 느낌에 붙은 이름표들 간의 관계가 생각이기 때문에, 느낌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생각만 한다면 당연히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촉감적인 느낌으로만 따져 보면 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낌의 경계는 모호한데도 우리의 생각이 ‘내 몸은 이렇다.’고 틀 지어서 고정시켜 놓고 분별하고 있죠.

이번에는 의식적인 느낌에 대한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원한 느낌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만들어낸 시원하다는 느낌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느낌과 구별 되죠. 그렇다면 시원하다는 그 느낌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물의 경계와는 다르지만, 마음에 그 느낌이 잡힌다는 것은 경계가 있어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선의 느낌을 깊숙이 느껴보세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경계가 얼마나 명확하게 계속 유지되는지 살펴보세요. 사물이나 몸의 경계선이 고정되지 않은 것처럼 의식적인 느낌의 경계선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분별되는 느낌은 비교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경계입니다. 그게 바로 대승기신론에 말하는 일체분별, 즉분별자심(一切分別, 則分別自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상(相)이 없어 자기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心不見心, 無相可得)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상(相)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요. 마음이 다양한 상(相)을 만들기는 하지만 마음 자체의 상(相)은 없고, 모든 분별 되는 상(相)은 마음속의 분별일 뿐 원래는 분별이란 것은 없습니다.

용훈습의 평등연(平等緣)은, 분별없음이라는 기본적인 통찰을 기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차별연(差別緣)은, 일체 분별이 마음의 일인지를 모르고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열반을 향해 노력하고 수행하는 거죠. 초기에는 이런 차별연이 필요하지만,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 모든 분별은 마음이 만들어 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전부 다 상(相)이라고 합니다. 열반도 상(相)이죠. 진여상(眞如相), 생멸상(生滅相), 불각삼상(不覺三相)... 모두 상(相)이에요. 모든 상(相)을 넘어선 무한한 생명의 힘이 다양한 상(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본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현상 자체가 곧 본질이기도 합니다. 본질이 드러난 어떤 모습이죠. 본질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을 모른다고 할 뿐, 모든 현상 자체가 이미 본질입니다. 본질의 드러남이죠.

금으로 코끼리를 만들면 사람들은 코끼리만 바라볼 뿐, 금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코끼리라고 말하죠. 금으로 돼지를 만들면 돼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코끼리나 돼지는 모습일 뿐, 본질은 금입니다. 그러나 금 자체는 모습이 없잖아요. 코끼리나 돼지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항상 모습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깨닫지 못함이든 어떤 앎이 있다는 것은, 모습 속에 있다는 뜻이고 현상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알았다고 주장하면 ‘알았다는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사물의 분별이 공간을 기반으로 하듯이 마음의 분별도 내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적인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냥 다르다,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내적인 느낌의 세계에서는 ‘이 느낌과 저 느낌이 다르다.’는 인식이 공간을 대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살펴봤듯이 외적인 사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처럼, 내적인 느낌도 자세히 살펴보면 경계가 희미해지고 모호해집니다. 이 모호함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느낌을 담는 그릇이에요. 느낌은 생각이나 이름이라는 테두리가 없으면 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느낌을 고정불변의 형태로 지속시켜주는 생각과 이름은 일종의 껍질과 같아서 경계를 유지시켜 줍니다. 내적인 경계의 메커니

음을 명확히 알아서 경계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파악하고, 그 기반 하에 수행하는 것이 평등연입니다. 차별연(差別緣)은 범부(凡夫)와 이승인(二乘人)이 분별사식(分別事識)을 통해서 가는 길이고, 평등연(平等緣)은 보살이 업식熏습(業識熏習)을 통해 깨우치고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 원문은 지금까지 말한 핵심을 길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差別緣者. 此人依於諸佛菩薩等, 從初發意始求道時, 乃至得佛, 於中若見若念, 或爲眷屬父母諸親, 或爲給使, 或爲知友, 或爲怨家, 或起四攝, 乃至一切所作無量行緣, 以起大悲熏習之力, 能令衆生增長善根, 若見若聞得利益故.

차별연자. 차인의어제불보살등, 중초발의시구도시, 내지득불, 어중약견약념, 흑위권속부모제친, 흑위급사, 흑위지우, 흑위원가, 흑기사섭, 내지일체소작무량행연, 이기대비훈습지력, 능령중생증장선근, 약견약문득리이고.

차별연(差別緣)이란 이 사람이 모든 부처보살에 의해 처음 발의(發意)하여 구도(求道)할 때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그중에 부처를 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함에 권속(眷屬), 부모, 제친(諸親)이 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급사(給使), 지우(知友), 원가(怨家)가 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사섭(四攝)을 일으키고, 일체 짓는 무량한 행위의 연(緣)이 되는 것이니, 이는 대비(大悲)로 훈습하는 힘을 일으켜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善根)을 증장케 하여 보거나 들어서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에 뜻을 둔 이후로 만나는 사람들이 깨달음의 불을 지필 외연(外緣)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요. 내가 뜻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깨우쳐 주는 도우미들이죠. 선재동자의 구도 여정의 글인 화엄경(華嚴經)을 보면, 선재동자는 만나는 사람을 외연으로 삼아 배웁니다. 도둑놈을 만나든, 창녀를 만나든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우죠.

사섭(四攝)은 고통 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이 중생을 불도(佛道)로 이끌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재물을 베풀어 주는 보시섭(布施攝),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을 하는 애어섭(愛語攝), 몸과 말이나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이행섭(利行攝), 상대의 근성을 따라 친하며 행동을 같이하여 이끄는 동사섭(同事攝)입니다. 동사섭은 보살의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 즉 중생과 나를 같은 한 몸으로 여기는 깊은 자비심을 말하는데, 중생에게 접근하여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이런 외연들이 커다란 연민으로 훈습하는 힘을 일으켜서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善根)을 일깨우고 증장시킵니다. 선근(善根)이 상·중·하근기(上·中·下根機)로 날 때부터 정해진 것으로 보기 쉬운데, 여기서는 대자대비(大慈大悲)하는 훈련하는 훈습을 통해서 선근(善根)을 기르고 강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선근(善根)도 길러진다는 뜻이죠.

此緣有二種. 云何爲二.
차연유이종. 운하위이.

이 연(緣)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인가?

一者近緣. 速得度故. 二者遠緣. 久遠得度故.
일자근연, 속득도고, 이자원연, 구원득도고.

하나는 근연(近緣)이니 빨리 도탈(度脫)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원연(遠緣)이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도탈을 얻기 때문이다.

是近遠二緣. 分別復有二種. 云何爲二.
시근원이연, 분별부유이종, 운하위이.

이 근원이연(近遠二緣)을 분별하면 다시 두 가지니 무엇인가?

一者增長行緣. 二者受道緣.
일자증장행연. 이자수도연.

하나는 증장행연(增長行緣)이요, 둘은 수도연(受道緣)이다.

증장행연(增長行緣)은 좋은 일을 하는 선한 마음을 키우는 인연이고, 수도연(受道緣)은 진리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인연입니다.
지금까지 차별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平等緣者. 一切諸佛菩薩, 皆願度脫一切衆生, 自然熏習恒常不捨.
평등연자. 일체제불보살, 개원도탈일체중생, 자연훈습항상불사.

평등연(平等緣)이란 일체 부처와 보살이 모든 일체중생을 도탈(度脫)시킴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이들을 훈습하여 항상 버리지 않는 것이다.

평등연은 보살의 서원(誓願) 같은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생을 훈습해서 항상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以同體智力故, 隨應見聞而現作業. 所謂衆生依於三昧, 乃得平等見諸佛故.
이동체지력고, 수응견문이현작업. 소위중생의어삼매, 내득평등견제불고.

이는 동체지력(同體智力)으로서 중생의 견문에 따라 응하여 업용(業用)을 나타내니 소위 중생이 삼매(三昧)에 의하여 평등하게 모든 부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체지력(同體智力)은 한 몸임을 아는 지혜의 힘인데, 이 동체지력으로 견문의 깊이가 각자 다른 중생의 레벨에 맞춰서 업용(業用)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평등연은 보살의 업식훈습을 사용하는 것으로 마음의 자재업용(自在業用)을 통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자유자재한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중생의 견문에 맞춰서 도(道)를 나타내서 보여줘서 이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은 분별심이 없어진 상태인 삼매(三昧)를 통해서 부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별없음을 통해서 가는 게 평등연이고, 이는 보살들의 길이기도 한 겁니다.